

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선택 “누이 좋고 매부 좋고” 상생에서 길을 찾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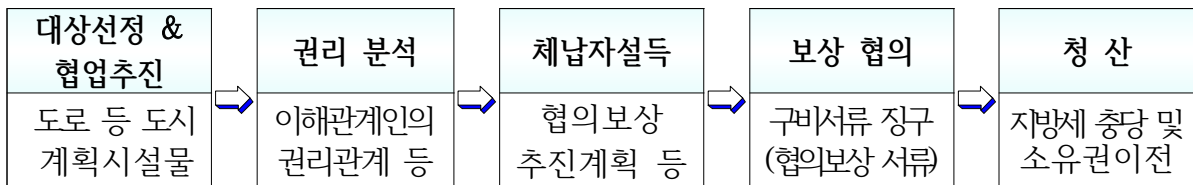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천시민의 품으로 -

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’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틀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된 도로의 협의보상에 의한 매수청구로 **체납세를 징수함과 아울러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**

□ 추진배경
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은 모든 지자체의 해결 과제
 -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**집행계획 수립 후 매수청구권과 일몰을 선택**해야 하는 기로에서 적극적인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해결방법 모색
- 적극적인 매수청구권 행사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
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도로에 대해 체납자를 설득하여 협의보상하고 보상액으로 체납세를 충당, 아울러 **시민에게 공공의 이익으로 되돌려 줌**

□ 주요 내용



【추진】 도시계획 부서와 업무 공유 및 매수청구 의뢰 [2월~4월]

【해결】 이해관계인과의 권리분석 및 해결 방법 모색 [2월~7월]

【설득】 순천시와 체납자가 윈-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설득 [2월~7월]

【청산】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체납액 18백만원 충당

【현재】 시민의 재산인 공공의 도로로 이용



사업시행 전



사업시행 후



보도자료("20.8.18.)

□ 추진상 어려움 및 극복노력

- 매수청구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원인 설득
 - 높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진 민원인에게 장기미집행시설은 매수청구가 ‘누이 좋고 매부 좋은’ 재산권 행사 방식임을 설명
-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한 절차 진행의 어려움
 - 실익 없는 물건의 압류해제는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세금징수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순천시 적극행정에 협업하여 권리관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
 - 여수농업협동조합, 국민건강보험공단, 순천세무서 권리관계 해결
- 상호간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한 목적 달성
 - 적극적인 매수청구 중개자로서 이해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을 사명감을 갖고 해소

□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

- 민·관이 윈-윈한 새로운 협업 모델 제시
 - 공매 실익 없는 도로를 민·관이 협동하여 시민의 재산(통행차량의 손실예방 등)을 보호하고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한 고질민원을 해결
-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문화 조성
 - ‘공한지 소공원 조성사업’으로 도로 본연의 공공용 재산으로 재탄생
- 체납처분(공매)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체납세 징수
 - 도시계획시설(도로) 협의보상금 압류로 체납세 18백만원 징수
 - 도로는 체납처분의 한계로 대부분 체납세 징수를 포기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를 협의 취득 후 보상금을 체납세에 충당한 유일한 사례로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
- 전국 243개 지자체 활용 시 1,500억 원 세수 증대 효과 기대
 - 순천시 체납처분된 도로 중 도시계획시설 협의매수 대상

납세자	물건(도로)	체납액	전국 세수증대 예상
27명	35건	6억	1,500억

-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
 -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전국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도로 등 시설물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한다면 상생의 기회 마련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대